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한화 이글스의 경기, KIA가 6-4 역전승을 거둔 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뉴스

호랑이, 이번 주 가을야구 확정 지을까



4개팀과 6연전 쉽표 없이 잔여 경기 일정 소화 페이스 유지 관건... 원정 3경기 체력 안배해야

시즌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호랑이군단이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기세는 무섭다. 하위권에 맴돌고 있던 순위는 어느덧 LG, 삼성 등 라이벌 구단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6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2.5경기, 7위 롯데 자이언츠와는 3.5경기, 8위 LG 트윈스와는 4경기 차에 불과하다.

이번 주 승부 결과에 따라 다음 주 포스트시즌 안정권에 진입할 수도, 다시 5위 사수를 위

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뻣뻣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웃을 수만은 없다.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경기수를 남겨두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주는 4팀과 맞붙는 가운데 3경기 원정으로 잡혀 있어 체력 저하가 우려된다.

KIA는 2일 광주 홈에서 NC 다이노스와 맞붙은 뒤 3일 대구구장으로 떠나 삼성과 승부를 벌인다. 이어 4-6일은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 3연전을, 7일에는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격돌한다.

거리만 놓고 보면 약 580km 정도를 이동해야 한다. 먼저 챔피언스필드에서 대구구장까지 210km(2시간 41분), 대구구장에서 문학구장까지 320km(3시간 42분)를, 문학구장에서 잠실구장까지 45km(1시간 10분)를 달려야 한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8시간 가까이 소모된다.

많은 경기를 치러 충분히 휴식을 취한 타구단과 비교하자면 불리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 경기를 치르고 떠나는 점이다.

KIA는 NC전 체력 소비 없이 홈에서 맞붙는다. 올 시즌 NC전 7승8패를 거두며 팽팽한 대결을 펼친 KIA는 이번 경기 승리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현재 홈에서만 6연승을 올리고 있는데 테이블세터를 비롯해 중심 타선들이 골고루 활약하고 있어 전망이 긍정적이다. 또 NC가 최근 10경기에서 1승9패에 그치는 등 팀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 KIA의 승리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후 경기부터는 승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원정 전인데다가 상대팀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KIA는 올 시즌 원정에서 웃는 일이 많지 않았다. 홈에서 41승 26패를 기록한 반면 원정

전서는 25승 41패로 홈과 정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원정 첫 상대인 삼성과의 역대 대결에서는 6승 9패에 그치는 등 고전해 격정이 앞선다. 5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삼성이라 힘든 경기가 될 것은 뻔하다.

또 가을야구를 확정지은 강팀 SK(2위)와 두산(1위)과도 대결을 펼친다. 이들은 오랫동안 상위권 자리를 지킬 만큼 좋은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은 이미 우승을 확정짓고 SK도 3위 한화 이글스와의 격차가 3.5경기차로 벌어진 상태라 승부에 크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상에서는 안 된다.

KIA가 두산(8승 7패)과 SK(9승 4패)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해온 터라 이를 설욕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4개팀과 험난한 6연전에 돌입한 KIA가 최근 기세를 이어 가을야구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한경닷컴 기자 hankk42@naver.com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개입사	연속
1	두산	137	89	48	0	0.650	-	2승
2	S K	136	76	59	1	0.563	12.0	1승
3	한화	138	74	64	0	0.536	15.5	2패
4	넥센	141	74	67	0	0.525	17.0	3승
5	KIA	133	66	67	0	0.496	21.0	3승
6	삼성	140	65	71	4	0.478	23.5	1패
7	롯데	132	61	69	2	0.469	24.5	2승
8	L G	140	65	74	1	0.468	25.0	3패
9	K T	136	54	79	3	0.406	33.0	3패
10	N C	139	56	82	1	0.406	33.5	6승



전상현

‘퓨처스다승왕’ 전상현, 다시 선발 출격

오늘 NC전서 데뷔 첫승 도전

다시 선발 기회가 주어진 전상현이 호랑이 군단에 승리를 안길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 전상현은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2번째 선발 등판을 한다.

전상현은 대구 상원고를 졸업하고 2016년 2차 4라운드 38순위로 KIA에 입단한 프로 3년차 투수다. 직구 구속은 140km 초반대에 머물고 있지만 변화구 등 제구력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입단 해에는 8경기 마운드에 올라 1홀드 2패 평균자책점 8.10을 기록하는데 그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 이후 투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주로 불펜에서 활약, 40.2이닝을 평균자책점 3.54로 마쳤다. 올해는 선발로만 뛰었다. 총 20경기를 뛴 동안 13승 5패 평균자책점 3.06으로 북부리그 다승왕이 됐다. 또 120.2이닝 동안 탈삼진 117개를 잡아내 퓨처스리그 유일한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활약은 KIA로 돌아와서도 계속 되고 있다. 북부리그를 치른 지난 14일 롯데전에서 불펜으로 등판해 1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어 선발로 오른 19일 삼성전에도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차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배짱과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날 5이닝을 버티지 못했지만, 소화한 3.2이닝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선발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1회 기습 홈런만 제외하면 실점 없이 경기를 펼친 터라 앞으로의 등판이 기대된다.

전상현의 선발 경기를 본 김기태 감독은 “괜찮았다. 4회 때 힘이 떨어져 보여서 그렇지 팀포도 빠르고 좋았다”고 말했다.

퓨처스리그 다승왕 출신 전상현이 1군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경닷컴 기자 hankk42@naver.com

야구선수협 “FA계약 총액 상한제 도입 반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BO에서 제안한 FA 제도 변경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선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협을 제도개선 협상 당사자로 인정할 점에 의의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KBO는 지난달 19일 선수협에 자유계약(FA) 총액 상한제, FA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KBO가 제안한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수협은 “제도 변경안은 시간을 가지고 예고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기까지 한 달을 채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순위경쟁을 하는 선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KBO 제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FA 계약총액 상한제는 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적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기자 hankk42@naver.com

벤투 감독 “유망주 점검 대신 아시안컵 집중”

A매치 2연전 25명 명단 발표

“1월에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지금은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 발굴이 아닌, 아시안컵 준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벤투 감독은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지수(경남FC)와 이진현(포항)의 첫 승선과 석현준(스타드 드 랑스)의 재합류를 제외하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의 깜짝 발탁은 없었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유망주들은 대거 빠졌다. 수많은 10대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이강인(17·발렌시아), 정우영(19·빈첸), 백승호(21·지로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창 자라나는 새싹들이다. 아직 성인 무대에서 보여준 것이 미미한 선수들이기에 A대표팀 합류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지만, 4년 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벤투 감독이라면 다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들을 위한 엔트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 선수 다 좋은 선수다. 관찰해야 할 선수들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에는 1월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이 언급한 ‘1월 대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안컵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1960년 이후 59년간 아시안컵의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결실은 맺지 못한 셈이다.

벤투 감독 또한 한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잠시 미룬 것이다. “유망주를 관찰하는 것 또한 내 역할”이라는 벤투 감독은 “현재 25명을 선발했는데, 그 이상 뽑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기조는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투 감독은 “9월 소집된 선수들과 이번 달에 온 선수들, 11월 올 선수들 중 아시안컵 멤버를 선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뉴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18년 10월 A매치 국가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 김자인, 시즌 첫 월드컵 ‘금’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30·스파이더 코리아)이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리드 월드컵 5차전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자인은 1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크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아르코 월드컵 이후 14개월 만의 우승이다. 월드컵 통산 27번째 금메달로 최다 우승 기록 행진도 이어갔다.

김자인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예선에서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도 유일하게 완승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였다.

준결승 성적 역순에 따라 8명 중 마지막으로 결승을 시작한 김자인은 다른 선수들이 고전한 34번째 홀드를 무리없이 잡는데 성공했다. 완승에는 실패했지만 34+로 아나카르브레(20·슬로베니아)와 한나슈베르트(20·오스트리아)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김자인은 매니저먼트사인 울갯스포츠를 통해 “세계선수권 이후 심리적,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지만, 열흘 간 인스부르크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해 컨디션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다”며 “27번째 우승



을 달성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정말 행복하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적 같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자인은 3일 오전 귀국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달 말에는 중국 우장에서 개최되는 6차 리드 월드컵에 출전, 2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뉴스